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5월 06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결산검사 활동 25일부터 본격 나서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 등 5명 위원 본격 활동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중인 강남연 의원(사진 가운데)과 위원들이 자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2년도 강북구의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하는 결산검사 활동이 4월 2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 25일 강북구의회 의정실에서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받은 결산검사위원은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안부래 전직 공무원, 정경영 회계사, 이석민 권진수 세무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5명이다.

결산검사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9일(5일 연장 가능)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자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또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결산검사위원은 2012년도

강북구의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강남연 책임대표의원은 "강북구 예산의 1%만 절약해도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입예산은 계획대로 징수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도있는 검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신문 3면



강북구청 강당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강남연 의원(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결산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결산검사 활동 25일부터 본격 나서

강남연 의원 등 5명 위원 5월19일까지 활동 예정

2012년도 강북구의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하는 결산검사 활동이 4월2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 25일 강북구의회 의정실에서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받은 결산검사위원은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안부래 전직 공무원, 정경영 회계사, 이석민 권진수 세무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5명이다.

결산검사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9일(5일 연

장 가능)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자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또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결산검사위원은 2012년도 강북구의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